

노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청원 번호	17
----------	----

2023년 12월 19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청원인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김예정 외 1,867명
2. 소개의원 :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 도시계획균형위원회)
3. 접수일자 : 2023년 12월 1일
4. 회부일자 : 2023년 12월 1일
5. 상정일자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채택)

II. 청원의 요지

- 현재 서울시에 있는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국립 2개교, 사립 4개교 총 6개교로 공립 예술고등학교가 부재한 상황임.
- 또한, 서울 동북부 지역에는 중학교부터 예술교육을 할 교육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임.

- 더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예술계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장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과 함께 높은 학비까지 부담하고 있음.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학교의 학비는 연간 약 165만원 수준이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부담액은 연간 약 705만원에 달하기 때문임.
- 한편, 노원구 하계동에는 장기간 방치되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1만 933제곱미터의 미개설 학교용지가 있는바, 해당 공간이 본래 용도에 맞게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미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노원구 하계동의 미개설 학교용지에 「노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요청함.

III. 소개의원 청원 소개의 요지(봉양순·서준오 의원)

- 노원구는 강남구, 양천구와 함께 서울의 3대 교육도시로 꼽히고 있으나 예술교육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더욱이 예술교육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학비가 매우 비싼데, 서울 북부 지역의 학생들은 학비 부담에 더해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 한편, K-팝, K-컬처 등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대외적 위상이 신장되고, 관련한 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 차원에서 예술교육에 대한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되는 시점임.
- 따라서 현재 노원구 하계동에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1만 933제곱미터 규모의 미개설 학교용지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IV.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청원은 2023년 12월 1일 봉양순·서준오 의원의 소개로 김예정 외 1,867명으로부터 청원번호 제17호로 제출되어 2023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청원은 북부지역의 예술 교육기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예술 교육의 공적 책임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미개설 학교용지에 공립 예술 중·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청원의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서울시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6개교, 예술계열 각종학교 5개교¹⁾, 일반계고등학교 2개교²⁾,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개교 등이³⁾ 예술교육에 특화된 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⁴⁾

이 중 서울 동북부 권역에⁵⁾ 위치한 학교는 염광고와 선화예술중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3개교에 불과합니다.

1)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진행하는 문화예술정보학교는 제외함.

2) 일반고 중 예체능 계열로 분류되는 서울미술고(관악구 소재), 학년당 관악예술과 1개 학급을 운영하는 염광고(노원구 소재)를 의미함.

3) 연예과, 뮤지컬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송파구 소재)를 의미함.

4) 이 외에도 문화·예술 계열 학과를 설치한 다수의 특성화고에서 예술 분야의 중등직업교육이 이뤄지고 있음. 영상음악콘텐츠과(리라아트고), 실용음악과(서서울생활과학고), 공연예술과(서울동구고), 미디어아트과(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 등의 형태가 대표적임. 그러나 특성화고의 교육은 산업수요와 연계한 직업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의 교육활동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임.

5) 토지이용에 관련된 서울시 정책에서 우선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을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구분하는데, 여기에서 동북권은 강북구와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총 8개 자치구를 포괄하는 지역을 의미함.

[표-1] 서울시 내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현황⁶⁾

(단위 : 개, 명)

자치구	학교명	설립	개교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학급당 학생수	23학년도 입학생 수
강남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	1972	15	436	49	29.1	151
금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	1960	18	518	54	28.8	182
강서	덕원예술고등학교	사립	1992	15	592	37	39.5	203
종로	서울예술고등학교	사립	1953	30	1,059	54	35.3	359
광진	선화예술고등학교	사립	1976	27	1,080	47	40.0	364
구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사립	1966	21	725	41	34.5	235

[표-2] 서울시 내 예술계열 각종학교(중, 고등학교 과정) 현황⁷⁾

(단위 : 개, 명)

자치구	학교명	설립	개교연도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학급당 학생수
중구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립	2009	5	117	5	23.4
금천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	1960	9	214	24	23.8
중구	예원학교	사립	1967	24	887	43	37.0
강남	국립국악중학교	국립	1991	12	309	32	25.8
광진	선화예술중학교	사립	1974	21	809	39	38.5

- 그러나 서울 북부 지역(노원구, 강북구, 도봉구)으로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면 해당 지역에는 학년당 관악예술과 1개 학급(정원 27명)을 운영하는 일반고등학교인 염광고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사실에 기초할 때 노원구 등에 거주하는 예술계열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동청원의 취지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 또한, 예술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K-팝과 K-컬처로 대표되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⁸⁾ 맞춰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

6) 2023년 유·초·중등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데이터셋에서 추출하여 정리한 것임.

(<https://kess.kedi.re.kr/contents/dataset> [검색일 2023-12-11])

7) 위와 같음. 단, 해당 자료에서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문화예술정보학교 등은 제외함.

할 때 추가적인 예술중·고등학교의 설립 역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욱이 2015년 발표된 연구에서⁹⁾ 서울시 내 중학교 교장의 90%가 관내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찬성했고, 그 이유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에게 교육의 경험을 제공”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공감했다는 점 역시 청원인이 요청하는 공립 예술교육기관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입니다.

[표-3] 서울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 찬반¹⁰⁾

대상	공립예술고 설립 찬반		x2(df)	p
	찬성	반대		
N	130	14	93.444(1)	.000*
%	90.3	9.7		

* p < .05

[표-4] 서울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 찬성의 이유

(단위 : 명, %)

구분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진로·적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 제공	예술전공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현대 흐름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력 있는 예술전공 학생 육성	예술계열 진학 희망 학생의 수요 일부를 흡수
긍정	126	125	114	112	119

8)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의 콘텐츠 시장은 세계 7위 규모(202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음. 특히, 한국 콘텐츠 시장은 매출액과 수출액 측면에서 각각 연평균 5%, 10% 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억 7,800만 명의 한류 팬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 KOTRA Invest Korea, “문화콘텐츠”,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30/web.do> [검색일 2023-12-11])

9)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시 내 382개 중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이뤄졌고, 이 중 회수된 144개의 설문지가 결과 분석에 활용되었음. (자료 : 최은식·신지혜(2015), “서울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 중학교 교장의 인식 조사”, <교과교육학연구> 19(1), 47-67쪽.)

10) 위의 글, 53쪽의 표를 정리한 것임.

구분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진로·적성에 맞는 체계적 지원 제공	예술전공 학생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현대 흐름에 맞춘 교육과정을 통한 창의력 있는 예술전공 학생 육성	예술계열 진학 희망 학생의 수요 일부를 흡수
응답수 (비율)	(96.9)	(96.2)	(87.7)	(86.1)	(91.6)
x2(df)	117.569(3)	111.538(3)	209.323(5)	167.877(5)	114.385(4)
p	.000*	.000*	.000*	.000*	.000*

* p < .05

** 긍정응답은 ① 매우 그렇다와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중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선택한 응답의 합계를 의미함.

나. 청원 내용(예술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

- 동 청원은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미개설 학교용지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청원에서 언급된 부지는 현재 한글비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노원구 하계동 256-1번지로, 1990년대 전후 추진된 중계2지구 택지개발 사업 당시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 용지로 계획되었던 곳입니다.

[표-5] 학교용지 현황¹¹⁾

명칭	소재지	면적	결정일자	소유자	사업명	사용현황
(가칭) 연동초	노원구 하계동 256-1	10,933m ²	'89. 9. 26. (건교부-547)	내공사	중계2 택지지구	주차장

11) 위와 같음.

[그림-1] 학교용지 현황도¹²⁾



-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설립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토지의 매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¹³⁾ 2021년에는 토지 소유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도 학령인구 증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해당 지역에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¹⁴⁾
- 그러나 예술계열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권역별이 아닌 시·도단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므로, 해당 지역의 학교설립 수요가 낮더라도 학교설립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청원인의 주장은 장기간 미집행된 학교 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은 일반적인 학교설립 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거친 뒤 신설 학교를 특성화중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

12)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view/dgtUndMain.html>) 자료임.

13) 노원구 하계동 공립 예술고 설립 요청에 대한 검토(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자료, 2023.12.4.).

14) 위의 글.

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공립학교 설립 절차는 붙임 자료 참조)

- 따라서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은 학교설립의 첫 단계인 학생배치계획 수립에 앞서 예술계열 특성화 교육 수요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운영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울시교육청 역시 본 건과 관련하여 특수 분야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립 예술중·고 설립은 예술교육 담당 부서의 학생수요 및 설립 판단이 선행되어야 구체적인 학교설립 계획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대외협력담당관-11713, 2023.12.11.)¹⁵⁾

다. 종합의견

- 사회 전반에서 한국 콘텐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예술 분야 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공립 예술중·고등학교의 필요성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본 청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술분야 중등 교육기관이 부족한 서울 북부지역에 예술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청원하는 것으로, 청원의 목적이나 내용적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2024~2028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서 향후 5년간 서울시 내 중·고등학생 수가 연평균 1.3~2.5% 수준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타 시도의 예술중·고등학교 운영 사례조사, 시민 의견수렴, 학생수요 진단 등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청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5)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청원 관련 의견 제출(대외협력담당관-11713, 2023.12.11.)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VI. 토론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X. 의견서 : 별첨.

[별첨]

의견서

□ 청원명 : 노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행정국·교육정책국)

□ 채택 의견

○ 동 청원은 서울 동북부 권역의 예술 교육기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예술교육의 공적 책임과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미개설 학교 용지에 공립 예술 중·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하고 있음.

○ 현재 서울 북부지역에는 학년당 관악예술과 1개 학급을 운영하는 일반고만이 예술 분야에 특화된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중등교육과정(직업교육 제외)에서 특화된 예술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

○ 더욱이 사회적으로 한국 콘텐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예술 분야 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공립 예술중·고등학교의 필요성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사실을 종합했을 때 예술분야 중등 교육기관이 부족한 서울 북부지역에 예술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은 예술계열 특성화 교육 수요와 교원 수급, 교육과정 운영, 학령인구 감소 추이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교육청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이에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함.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17	접수연월일	2023.12.1
청원인	주소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성명	김예정 외 1,867명	
소개의원	봉양순, 서준오	소속위원회	환경수자원, 도시계획균형
건명	노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교육		
<p>○ 서울 동북부 교육도시 노원구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요청하는 청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서울시에 있는 예술계열 특목고 6개교 중 국립 2개교, 사립 4개교로 공립 예술고는 없음 - 특히, 서울 동북부 지역에는 중학교부터 예술교육을 할 교육기관 또한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가거나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비 부담도 큼 - 사립의 경우 학생 1인당 부담액은 연간 약 705만원, 국공립은 약 165만원에 불과하며, 공립이 사립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함 - 또한, 노원구 하계동에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1만 933제곱미터의 미개설 학교용지가 있는바, 이 공간이 주차장이 아닌 본래의 용도에 맞게 청소년이 꿈을 키우는 미래 산실이 되어야 할 것으로 - 서울 동북부 교육도시 노원구에 「노원 공립 예술중·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요청함 			